

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(사회산업국 소관)

I.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

-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3억 6,447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의 7.8%인 9억 9,464만원이 증가한 규모임.

그중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5억 5,048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음.

- 일반회계의 주요증가 요인은 수해복구비 7억 1,561만원으로,
 - 농축산과의 농작물 수해복구 사업으로 6억 9,599만원을 비롯한 축산분야에 912만원 수산분야 지원에 1,0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 - 산림과의 산사태복구부담금 3,194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II. 검토의견

-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9억 9,464만원이 증액된 136억 4,473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, 이는 국비보조사업 5억 7,160만원과 도비보조 1억 1,087만원, 자체재원 3억 1,217만원으로 계상되었음.

- 수해복구사업 내역으로는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농가 자녀장학금 지원, 축산시설 및 가축입식, 수산시설 및 수산생물 입식 등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고 부담율에 의한 자체부담금으로 편성되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복구비지급지원기준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피해규모에 비해 지원액이 미약한 실정임.

- 산림과의 산사태 복구 시군부담으로 3,194만원을 계상하였으나
우리시의 산림 수해복구 지원액에 비해 과다하여 사업내역과
부담기준등의 검토가 요망됨.
- 일반사업비로는
 - 기업지원과의 공공근로사업으로 6,0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
편성하여 약수터정비 1개소, 공중화장실 설치 1개소 등으로
계상하였으나 이 같은 토목·건축공사에 공공근로자들의 역할이
미미할 것으로 보아 그 사업효과가 미진할 것으로 사료되며,
 - 저소득주민 연탄 운반비로 지원되는 500만원을 도비 보조금이
감액되었다는 이유로 전액삭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단의
지원이 요구됨.
- 사회산업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와 자체부담에
의한 수해복구비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일반경상비 및 각종사업의
집행잔액의 삭감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.